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학승이 물었다.
“장육(丈六)의 금신(金身)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커드람이 밀 옷깃을 재어 보라.”
학승이 물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모르셨으면 사람에게 부탁하여 재어 보아라.”

問 如何是丈六金身 師云 腋下打領 云 學人不會 師云 不會請人裁

석가모니의 키는 1장 6척(丈六)이라는 설이 있다. 1장은 10자를 말하니 요즘의 계산으로 말하자면 거의 5m가 넘는다.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키가 5m 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자(尺)의 길이는 요즘 자의 길이와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옛날식 길이로 석가모니의 키는 1장 6척이요 앞은 8자라고 한다.

석가모니 키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도 있는데, 팔상록에서는 키가 9자(약 2m70cm)라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의 키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고, 또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지 7일 만에 사망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난산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기가 남보다 유달리 커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되므로 이 모든 것이 일반 사랍보다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키도 크고 몸집도 유달리 컸으므로 걸여갈 때 마치 코끼리가 걸여가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또한 몸은 금

색을 띠었다.
학인은 부처님의 몸이 장육금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어디서인가 듣고 정확히 장육금신이 어느 정도인가 선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너의 커드람이 밀을 자로 재봐라, 그러면 장육금신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것이다”라고 간단히 말해준 것이다.
이 대화에서 영리한 남자라면 장육금신이 무엇을 말하느니 금방 알아챌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육금신을 간파하지 못한 남자라면, 지금 당장 자기의 키를 정확히 재어보라. 그 숫치가 장육이고, 그대의 몸이 금신이다. 알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학인이 의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의(大宜)인가, 소의(小宜)인가?”
학승이 말했다.
“대의(大疑)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의(大宜)는 동북각(東北角)이고 소의(小宜)는 승당 뒤쪽이다.”

問 學人有疑時如何 師云 大宜小宜 學云大疑 師云 大宜 東北角 小宜僧堂後

의(宜)자와 의(義)자는 비슷한 글자이다. 의(宜)는 ‘당연한 옳음’이라 뜻이고, 의(義)는 단순히 ‘옳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다 ‘뜻’으로도 통한다. 의(疑)자는 ‘의심’이라는 뜻이다. 조주 스님이 살고 있는 관음원 동북쪽은 터가 좀 넓게 드러나는 곳이었다. 따라서 대중의 공개적인 행사, 예를 들어 부처님오신날 행사나, 대중 설법이나 모임 등과 같은 의미가 큰 것은 여기서 치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승당 뒤쪽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작은 행사나 빨래 등 사적인 일이 행해지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무엇 수행자라면 인생에 대해 큰 뜻을 의심해야 한다. 무엇이 큰 의심인가? 분노병사를 면할 길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주는 어떻게 생멸하는가, 끝없는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심이다. 만일 학인이 이 의심을 놓치면 그것은 출가 본분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신심(信心)과 함께 의심(疑心)을 수행자의 생명을 이어주는 끈으로 생각했다.
학인이 평상시 의심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큰스님에게 점검해 보려고 질문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대의(大宜: 큰 뜻)라면 자기 자신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소의(小宜: 작은 뜻)에 대한 의심이라면 단지 사적인 일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대의(大宜)가 좋고 소의(小宜)가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때에 따라서 대의를 생각할 때가 있고 소의를 생각할 때가 있다. 큰일은 대의를 사용하고 작은 일은 소의를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대의는 단지 대의이고 소의는 단지 소의일 뿐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



내게도 꿈이 있거늘 (테라가타)

꿈! 꿈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가 말했듯이, 나는 내 가슴이 뛰다. 꿈은 미래의 상징(象徴)이다. 꿈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내일은 결코 수평선 저 너머에 있지 않다. 저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어디메쯤 걸려 있다. 그렇기에 꿈은 저 하늘로 올라가서 날아가는 색색깔 풍선과 같다. 그 풍선 같은 것이 바구니를 달고 있으면 너끈히 우리를 태워서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꿈을 말하는 자는 청춘이다. 꿈을 말하는 자는 내일이 있는 자이고, 내일이 있는 자는 청춘일 것이기 때문이다. 좀 과장스런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100세 시대’라고 한다. 100세가 될 때까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꿈꾸라는 말이 아닌가. 그때까지는 청춘으로 살아야 하는 말이 아닌가. 아니, 100세가 되어서 죽는다 한들 우리의 꿈꿀 권리를 어느 누군들 가로막겠는가. 왕생의 꿈이 있고, 정토에의 그리움이 있는 한 말이다.

꿈은 자다가 꾸는 꿈, 그래서 깨고 나면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그 생리적 현상에 대한 이념을 그 시원(始源)으로 갖는다. 그렇기에 달려가도 달려가도 잠을 수 없는 파랑새 같은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누구나 꿈을 갖고 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늘 손에 잡는 것은 빈 허공일 뿐이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늘 허탈하지만, 그렇게 채워지지 않기에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꿈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유감스럽기도, 불교는 이 ‘꿈’에 대해서는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말해온 것 같기도 하다. 꿈을 꾸는 자의 편이라기보다는 꿈을 깨는 자의 편에서 말이다. 저 유명한 [금강경]의 한 구절, “모든 이루어진 것은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는 말은 꿈을 꾸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몽유병(夢遊病)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향해서 천천히 걸음하시면서, 우리들의 꿈을 깨뜨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살까?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그렇기에 [장로계]에 나오는 이 말씀

은 매우 예외적으로 들린다. 또 그만큼 우리들, 아직 꿈꾸는 범부(凡夫)를 감싸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하다. “꿈을 안고 발을 감고, 꿈을 안고 씨를 뿌렸습시다. 상인들은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내게도 꿈이 있거늘, 부디 저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 (비구의 고백, 비구니의 고백) 민족사, 114~115쪽) 칼루다인 비구의 노래이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를 조빙하러 파견됐다고 한다. 그 길이 곧 출가의 길이기도 했지만, 고향을 방문해 주시사하는 뜻만은 잘 전달했다.

자, 여기서 나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칼루다인 비구로부터 “부디 저의 꿈을 이루어 주



소서”라고 하는 청(淸)을 받으신 분이. 붓다는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받는 분이시다. 실제로 그렇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는 [관음경]의 관세음보살로 되살아난다.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붓다는 꿈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는 하셨을 것이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의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어는 주셨을 것이다. 이 관심, 이 물음 · 배려만으로도, 아, 칼루다인 비구는 얼마나 행복했을 것인가. 그런 사랑, 그런 관심, 그런 배려를 베푸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다. “내게도 꿈이 있다.” 그러나 제발 내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나 봐달라고 말하. 그게 사랑이 아닌가, 그게 서비사가 아닌가. 그렇게 관심이라도 가져달라. 그대의 꿈에 나 역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주성원 기자의
기초 교리 <1>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야만 불자

삼보(三寶)와 삼귀의(三歸依)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歸依佛兩足尊]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歸依法離欲尊]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歸依僧眾中尊]

한국의 모든 범회(佛會)의식은 ‘삼보(三寶)에 귀의[三歸依]’ 하는 삼귀의(三歸依)로 시작한다. 그만큼 불교에서 삼보는 중요하다. 따라서 불자라면 삼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불교 교단이 있는 곳엔 반드시 삼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시대 어떠한 지역의 불교에서도 대승을 망라한 모든 교단은 삼보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고, 신행의 시작이다. 즉, 삼보에 귀의해야만 불자라고 말할 수 있다.

삼보는 부처님을 뜻하는 불(佛: Buddha),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法: dharma), 불법으로 대중들을 교화시키는 승(僧: sangha) 세 가지를 가리킨다.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 세

속의 보배와 같기 때문에 세 가지 보배라고 한다. 하지만 불교역사 2500여 년 동안 원시불교-부파불교-대승불교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삼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현전삼보(現前三寶), 주지삼보(住持三寶), 일체삼보(一體三寶)이다.

현전삼보는 역사적 실존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셨던 시대의 삼보를 가리킨다. 현전(現前)이라는 말 그대로 지금 눈앞에서 부처님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시대의 삼보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부처님 자신이 불보이며, 부처님이 설하시는 가르침이 법보이고,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비구니들이 승보가 된다.

주지삼보는 부처님 열반 후, 각 시대 별로 불교에서 삼보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온 삼보의 개념이다. 불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멸한 후에도 오래도록 삼보를 지킬 의무가 있었고, 부처님의 형상을 대신하기 위해 금속 · 목재 · 돌 등을 재료로 불상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려 불보로서 받들기 시작했다. 후세에도 불보가 전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이 등에 기록했거나 인쇄된 경전을 말한다.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경전 기

록물을 법보로 정하고 ‘주지’ 하기 위해서였다. 승보는 비구, 비구니로 구성된 시대별 각 종파의 출가교단을 가리킨다.

일체삼보는 동체삼보(同體三寶)라고도 하는데, 불법승 삼보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체라고 해석한 것이다. 법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설한 것이므로 부처님에 의존한다. 또 부처님은 법을 발견하고 체득했기 때문에 깨닫게 됐으므로 법을 떠나서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처님은 법을 본질로 하고 있다. 게다가 승은 부처님의 대리자로서 민중에게 법을 설하는 존재이므로 부처님과 법을 떠나서 승 역시 있을 수 없다. 이처럼 불 · 법 · 승 삼보는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체삼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와 상관없이 불보(佛寶)는 불교의 개조이자 교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고, 법보(法寶)는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교법이며, 승보(僧寶)는 부처님 대신에 민중들에게 불교 이론과 실천을 전하고 민중을 지도 교화하는 출가자 단체라는 큰 틀에 있는 변함이 없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주성원 기사는... 일본 류코구(龍谷) 대학 불교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고, 구사론과 고전 파니니(Pāṇini) 문법을 연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성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는데 저희 한의원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명지한의원

예약 문의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한 의 사 원장스님 흥화 (권대일)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동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직사귀 / 병귀 / 부정발미 / 산소탈 및 해소방법을 정략하고 효과 크게 제시함

<p>◆ 육임 학습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사육임강론 2011개정중보 제8판본 상(학승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육사육임사주강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육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사육임상생활강정법 2011정년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육사육임산길일길사선택법 2011정년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육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중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년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년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년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년판 수록 5만원 · 동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p>◆ 육임 활용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년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중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중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중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중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사육임일길사선택법 2011 제3판본정년판 1권 5만원 · 육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중보 제2판본 1권 15만원 	<p>◆ 기 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사육임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육사육임불요집 2011최신판 5만원 <p>◆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번진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사육임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원성 정가650만원 (각미별 확정) · 군자수첩 정가103만원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육임나라(주) 농협 301-0071-8027-01 /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기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